

전도의 영적 조건과 육적 조건

작성일 : 2012. 8. 20.(월) 새벽 4:20

작성자 : 윤병돈 (안성 천운교회, SS 교역자)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께 전도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전도를 해서 수료를 시켜도 악평과 의식 부족으로 계속 생명이 무너져 너무 답답합니다. 기준자를 세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몇 년째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며 답답한 심정을 고하였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아.

생명을 살리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니,

이는 사람이 물건을 살 때,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는 것과 같다.

생명을 세상 바다라는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살 때,

영적, 육적 조건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되는 영적 조건은 기도이며,

육적 조건은 실천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사랑아.

육적 생명을 창조할 때,

남녀가 사랑의 관계를 하여 생명을 낳듯이

영적 생명이 창조될 때,
성삼위와 너희가 사랑의 교통을 함으로
영적 생명이 탄생된다.

기도가 무엇이나.
나와의 소통이며, 교통이다.
그러니 나와 소통하며, 사랑하는 것이
영적 사랑의 관계를 하여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같다.
나와의 교통으로 맺은 사랑은
너희가 쌓은 의가 되며,
내가 행하는 조건과 발판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육적 관계만 하여
생명이 잉태되면,
정신적 사랑 없이 난 생명인고로
기형이 되어 온전할 수 없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끊임없이 교통해야
온전한 영적 생명이 잉태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형적 생명이 전도가 되니,

먼저 너희는 나와의 사랑이 온전한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랑이 온전치 않으니,
생명 또한 온전치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내게 진정 구하고,
내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여라.
내가 네게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여라.
내게 합당한 기도를 하여라.
무조건 생명을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너와 내가 교통하며,
소통하는 기도를 할 것이며,
그 땅에 성삼위가 행한 일을 감사하며
과거 잘못된 일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여야 한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성삼위의 마음을 풀어
삼위가 역사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사랑아.
선생 통해 역사하는 삼위를 보아라.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 그의 기도에
성삼위가 귀를 기울이며,
그가 고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삼위가 진정 사랑하는 자이며,
그가 세운 사랑의 조건이 흠이 없기에,
그 조건을 통해 성삼위가 역사함을 보아라.
사랑아.
전도의 비법은 선생이다.
너희가 네 땅에 세운 조건이 부족하고,
그 땅을 향한 성삼위의 마음을 푸는
너희의 사랑의 기도가 약하면,

선생에게 고하여 네가 밟는 땅에
선생의 눈길이 가게 하여,
삼위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라.

그러니 선생에게 고할 때에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보고하며,
무엇을 잘못했고, 어떠한 죄가 있는지
상세히 고하여야 한다.

(주님. 이 땅을 보시고 죄가 있다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섭
리인을 보시고 우리도 죄가 있다고 하시는 것과 같나요?)

사랑아.
너희 각 개인을 바라보는 삼위의 마음과
네가 사는 땅을 바라보는 삼위의 마음이 다르니,
진정 네 땅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는 땅의 생명을 바라보는
삼위의 안타까운 마음을 푸는 기도가 되니,
곧 생명을 간구하는 기도가 됨이라.

(아멘! 먼저 주님과 교통하며, 이 땅을 향한 삼위의 마음을
풀어 드리는 기도를 해야 함을 알겠어요.)

사랑아.
깊이 기도하여 아브라함 같이
이 땅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며,
선과 악을 쪼개야 한다.

악한 생명은 데려올 수 없나니,
먼저 이 땅에 선과 악을 쪼개는 기도를 하며
선하고 착한 생명,
내가 택한 생명을 불러 와야 한다.

그러니, 택한 자를 보내 달라만 기도하지 말고,
네 안의 선과 악을 쪼개고,
그와 같이 네 땅의 선과 악을 쪼개어 기도하여라.

캠퍼스 선교, SS 선교의 기도는 동일하다.

이성적 문제가 있는 학교이면,
그 학교의 이성의 문제를 회개하며,
이성적 문제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쪼개어
기도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악평 문제이면,
먼저 성삼위의 상한 마음을 풀며,
이 땅을 위해 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기도를 하지 말고,
성장하였으니 성장된 자로서
상삼위의 마음을 푸는 기도를 해야 한다.

사랑아.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을 창조한 삼위의 근본 된 마음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있음으로
사탄에게 조건이 잡혀
헤어 나올 수 없나니,
이는 너희가 그 생명을 위해
육적 조건이 필요함이다.

(주님. 육적 조건이요?)

그래, 사랑아.
육적 조건이란, 말씀을 행함인데,
이는 생명이 자신을 구원한 자를 깨닫고,
시대 보낸 자를 깨달아
삼위께 진정 감사하며
회개하도록 돕는 너희의 조건을 말한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증거하며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제대로 깨닫고 행하여야 한다.

생명을 진정 살리고 싶느냐!
그럼 제대로 된 증거를 하여라.
생명에게 제대로 된
회개와 감사를 시켜야 한다.
그러니 시대 보낸 자!
선생을 외치며 증거해야 한다.

(세상이 악하여 선생을 이리 가두고 억울하게 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하지만, 솔직히 선생님을 세상 사람에게 증거할 때
는 위축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아.

선생의 심정 알아야지.

선생이 부끄러우냐?

선생이 죄를 지었느냐?

(주님.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럼. 그가 너를 향한 희생을 하지 않았느냐?

(절대 아닙니다.)

사랑아. 선생을 진정 사랑하느냐?

(네. 선생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아.

그리하면, 네가 그를 위해

그와 같이 희생해 주어라.

세상 구원을 위해, 그가 너를 위해

이 사랑의 조건 세웠듯이

네가 이 땅에 그를 증거하며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신약 사도들을 보아라.

무엇으로 생명을 전도하며,

세상의 그 악한 마음을 돌려놓았느냐?

사랑이다. 희생이다.

오직 자기 목숨을 걸고 증거함으로
악하고 악한 세상이
심령 굴복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랑아. 담대하여라.
내가 성삼위 앞에 목숨을 내어놓으면
두려울 것이 없음이라.

(주님. 그럼, 거리에 나가 외치며 전도를 해야 하나요?)

사랑아. 때가 왔다.
시대가 악하여 드러내지 않고 전도를 못하며,
사도가 십자가를 지며
시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전반기 무덤기간
선생이 십자가를 지어 선교를 했다면,
이제 부활하여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선생과 함께, 나와 함께
시대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 그럼 무엇을 외쳐야 해요? 주일말씀을 요약해서 전해
야 하나요? 30개론을 전해야 하나요?)

사랑아. 핵을 전하여라.
시대 소경에게 전할 핵을 외치어라.
시대 보낸 자가 당한 억울함을

성경적으로 증거해야 한다.

스데반 집사를 보아라.

그는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만 외치지 아니하였다.

성경적으로 증거를 하였고,

이후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그러니, 선생이 너희에게 억울한 심정 담아

말씀으로 시대를 증거하며, 때를 증거하였으니,

너희는 그를 통해 배우고 제대로 깨달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알았느냐?

(아멘!)

사랑아.

그러니, 기도하여 심정 받아라.

지금의 너희는 아직 부족하다.

더 몸부림쳐라. 뒤집어져야 한다.

너희 위해, 시대를 위해, 선생을 위해,

성삼위를 진정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한다.

네가 구하기에,

합당하여 깊은 말씀을 알려준

성자 주 예수다. 사랑해.